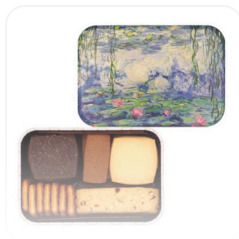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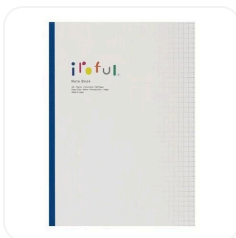


당신의 판매 채널에, 일본의 도매 사입을 연결합니다.

☑ 초기 비용 0원 ☑ 월 이용료·API 이용료 0원 ☑ 카드 등록 없이 오늘 바로 사용 가능



orosy 는 약 20만 개의 도매 상품을 귀사의 비즈니스에 **그대로 연동할 수 있는** 서비스입니다.

1

재고를 보유하지 않고
취급 품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

팔린 다음에 사입하는 방식(구조는 p.03-07, 사례는 p.08-12)

2

비용은
상품 대금과 배송비뿐

초기 비용·월 이용료·API 이용료 모두 0원. 미배송·불량은 전액 환불(p.13-14)

3

오늘부터,
카드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

운영사는 giftee(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) 그룹의 관계회사(p.15-17)

이용 방법은 3 가지 — 어디서 접속하시든, 같은 카탈로그와 같은 장바구니로 이어집니다.

1 화면으로 조작



2 AI 에게 말 걸기

재고가 있는 주방 잡화 10건 보여줘

10건을 찾았습니다. 목록을 표시합니다

3 귀사 시스템에 연동

```
curl https://wholesale-api.../v1/products \
-H "Authorization: Bearer $KEY"
```

이런 번거로움,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.

- 1 취급 품목을 늘리고 싶지만, 재고를 먼저 떠안는 부담이 큼니다.
- 2 공급사마다 발주 연락, 청구서, 마감이 제각각 나뉘어 있습니다.
- 3 재고나 도매가 확인이, 매번 문의하거나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
구조

연결은 **하나면** 충분합니다.

공급사별 개별 협상과 거래 계좌 개설은 orosy 가 말합니다. 공급사가 달라도 장바구니는 하나입니다.



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취급 품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

팔린 다음에, **사입합니다.**

약 **20**만 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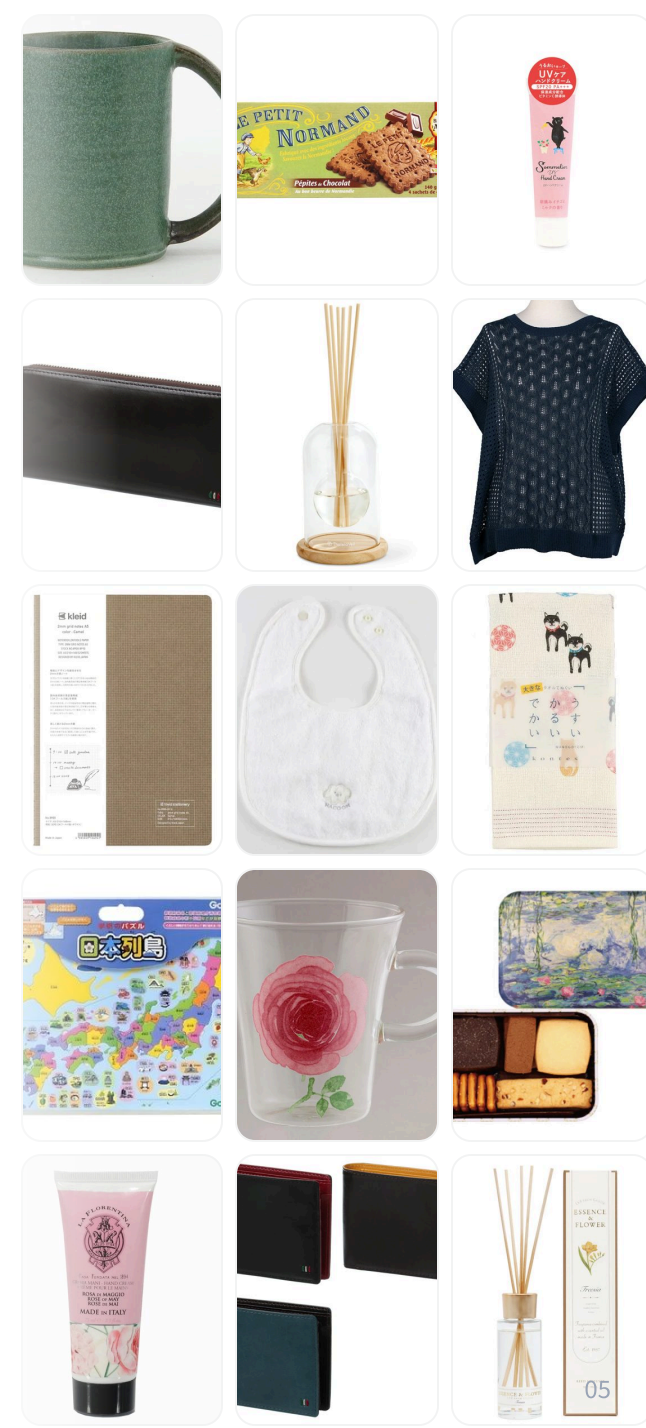
여러 공급사의 상품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(2026년 7월 시점 실측: 199,394개)

선행 사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

팔린 다음에 사입하는 방식이므로, 재고를 먼저 떠안지 않고 취급 품목을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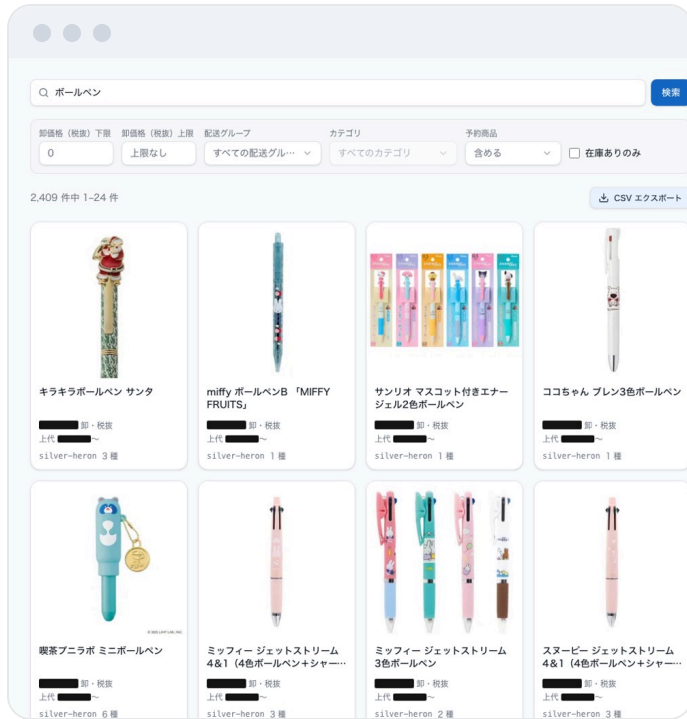
반응을 보면서 넓혀갈 수 있습니다

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팔려서 사입할 때뿐입니다. 반응을 보며 취급 상품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.



화면 이용

검색부터 발주와 관리까지, 하나의 화면에서 끝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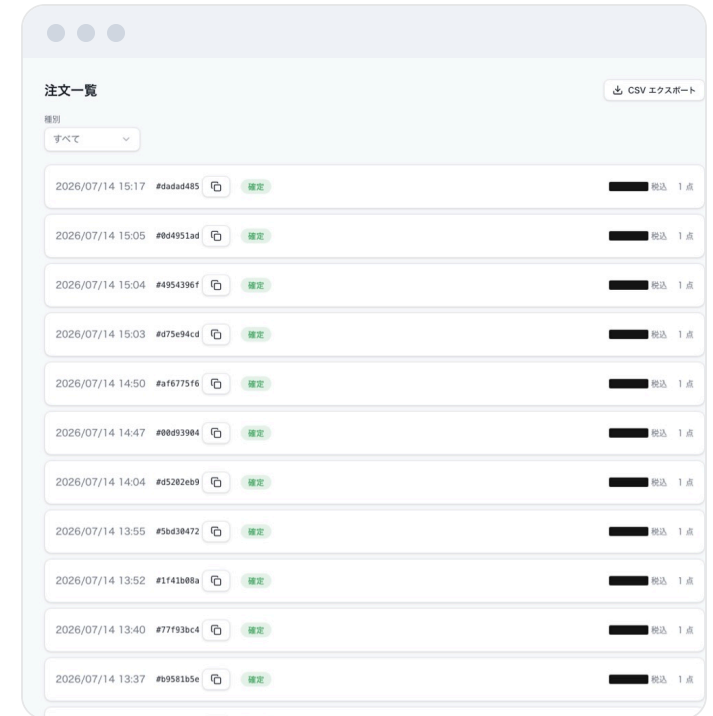
상품 찾기

공급사를 넘나드는 통합 검색



장바구니에 모으기

공급사가 달라도 장바구니는 하나



발주·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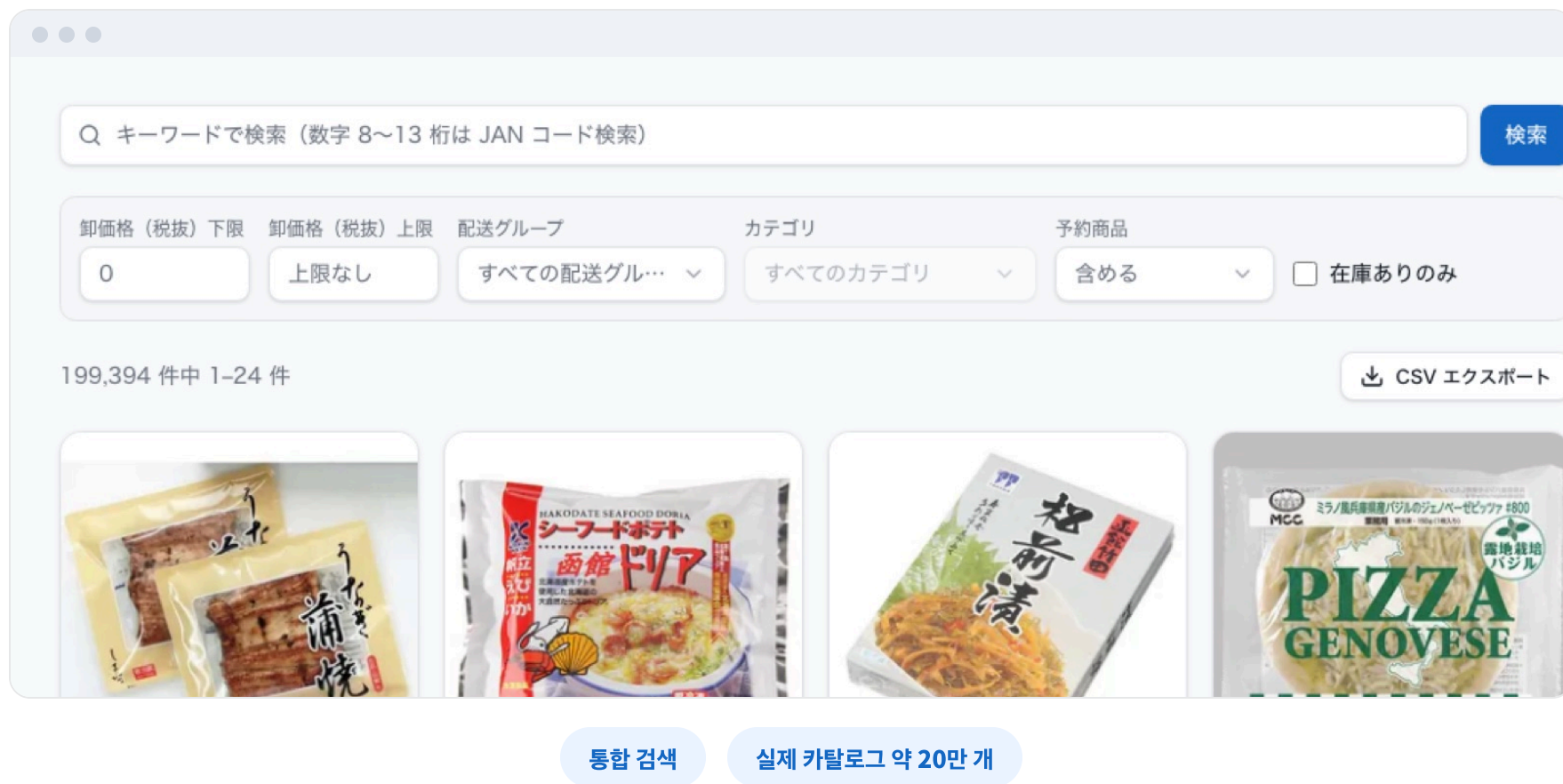
주문 상태는 목록에서 확인

발주 전에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(사전 견적). 주문하기 전에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※ 화면 안의 도매가는 가려 두었습니다(이용 시작 후 표시됩니다).

사내에 엔지니어가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브라우저의 관리 화면만으로 검색부터 발주, 청구서 발급까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“진열하는 것은 데이터, 사입은 팔린 다음에.”

#재고리스크제로

#시즌상품대응

#취급품목확대

사례로 보는 — 유스케이스 1

이런 분께 — 자사 이커머스·온라인 스토어 운영자(규모 불문)

사입하지 않고도, 자사 이커머스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.

이런 상황 — 취급 품목을 넓히고 싶지만 사입해서 재고를 떠안는 부담이 큼니다. 시즌 상품은 재고가 얼마나 남을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.

지금의 과제

- 사입한 뒤 판매하는 방식에서는, 재고가 남을 위험이 곧 취급 품목 수의 한계가 됩니다
- 새 공급사를 찾을 때마다 거래 계좌 개설과 조건 협상에 시간이 걸립니다

orosy 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✓ 상품 데이터를 받아 먼저 이커머스에 올릴 수 있습니다 — 이 시점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
- ✓ 주문이 들어온 뒤에 orosy 에 발주해 사입합니다
- ✓ 시즌 상품도 반응을 본 뒤에 사입하실 수 있습니다



“제안부터 도입까지, 공급사 개척은 0건으로.”

#이커머스운영대행

#제안폭확대

#재고리스크제로

사례로 보는 — 유스케이스 2

이런 분께 — 여러 기업의 이커머스 운영을 수탁하는 사업자

고객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, **단번에 늘어납니다.**

이런 상황 — 고객사로부터 “취급 품목을 넓히고 싶다”는 상담을 받습니다. 그러나 새 공급사 개척과 협상부터 시작하면 제안까지 시간이 걸립니다.

지금의 과제

- 상품을 제안할 때마다 공급사 물색, 거래 계좌 개설, 조건 협상이 발생합니다
- 고객사별로 수·발주와 청구 관리가 나뉘어 운영 대행 공수가 늘어납니다

orosy 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✓ 약 20만 개 카탈로그에서 곧바로 상품 제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
- ✓ 검색부터 발주, 청구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 운영 대행이 수월해집니다
- ✓ 재고 부담이 없는 ‘신규 카테고리 추가’를 고객사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



“주문을 받은 다음에, 조달합니다.”

#취급카테고리확대

#수주후발주

#기존거래방식유지

사례로 보는 — 유스케이스 3

이런 분께 — 특정 카테고리의 사입·도매 / 기존 거래처(소매·이커머스)에 상품을 공급

사입하지 않고, **취급 카테고리**를 늘립니다.

이런 상황 — 거래처에서 “장난감이나 잡화도 놓을 수 없나?”라는 말을 듣지만, 자사가 취급하지 않는 카테고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.

지금의 과제

- 새로운 카테고리를 취급하려면 자사가 직접 사입해 재고를 떠안아야 합니다
- 거래처의 “그것도 있으면 좋겠다”에 응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

orosy 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✓ 카탈로그에서, 취급하지 않던 카테고리를 거래처에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
- ✓ 주문을 받은 뒤 orosy 에 발주하는 조달 방식이므로 재고를 먼저 보유하지 않습니다
- ✓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흐름과 수·발주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



“찾고 고르고 등록하는 일을, AI 가 대신합니다.”

#AI사입

#MCP지원

#기획시간단축

사례로 보는 — 유스케이스 4

이런 분께 — 상품 기획·선정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 이커머스·소매 담당자

“○○용 잡화를 1만 엔어치”를, AI 에게 맡깁니다.

이런 상황 — “어버이날용 잡화를 1만 엔어치”— 이런 기획을 할 때마다 방대한 상품 중에서 찾고 골라 등록하고 있습니다.

지금의 과제

- 상품을 찾고 고르고 등록하는 작업이 기획할 때마다 반복됩니다
- 인력이 부족해 상품 구성을 갱신하는 주기가 늘어납니다

orosy 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✓ AI 어시스턴트에게 말로 요청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 고르고 장바구니까지 구성합니다(MCP 표준 지원)
- ✓ 사람이 하는 일은 마지막 확인과 발주뿐입니다 — 발주 직전에는 반드시 총액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안전 설계입니다
- ✓ 찾고 고르고 등록하는 수고를 AI 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



“전용 화면을 열지 않고도, 발주까지 완료.”

#Slack연동

#스프레드시트

#쓰던도구그대로

사례로 보는 — 유스케이스 5

이런 분께 — 여러 매장·팀 단위로 사업을 돌리고 계신 현장 / 스프레드시트로 사업을 관리하시는 담당자

평소에 쓰시는 **Slack**이나 **스프레드시트**에서,
발주하실 수 있습니다.

이런 상황 — 발주만을 위한 전용 화면은 현장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. 직원 모두가 로그인과 조작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.

지금의 과제

- 현장 직원 모두가 새로운 화면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
- 사업 관리의 실제 모습은 스프레드시트와 메신저 안에 있습니다

orosity 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✓ Slack이나 LINE에서 “이거 10개”라고 보내면 발주되는 연동을 API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
- ✓ 스프레드시트에서 가격·재고를 조회해 발주하는 방식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
- ✓ 현장은 새 조작을 익힐 필요 없이, 쓰던 도구 그대로 사용합니다

회계 처리까지 이어집니다

일본의 상거래 관행에, **처음부터 대응.**

적격청구서(일본 인보이스 제도)를 자동으로

주문 건별 적격청구서 PDF 를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확정된 금액에 대해 발행되므로 대사가 단순합니다.

신용카드 결제·엔화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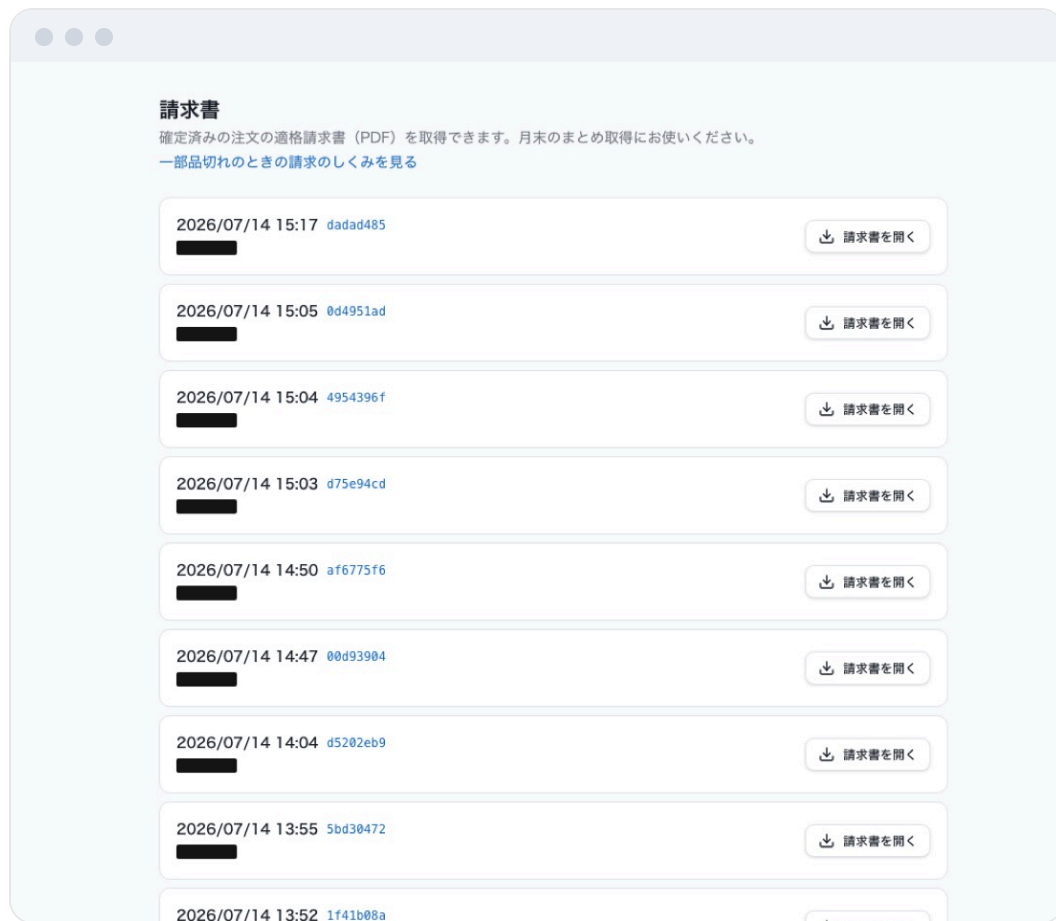
3D Secure 를 지원하는 카드 결제이며, 엔화로 결제됩니다.

확정 금액 기준이라 경리 처리가 단순합니다

주문과 청구의 대사를, 확정된 금액끼리 맞추면 됩니다.

※ 후불 청구(외상 거래)는 준비 중입니다.

보충: 청구는 실제로 확보된 수량(실제로 도착하는 수량)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. 전량 품질이면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장바구니에 담은 뒤 도매가가 변동된 경우,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.



드는 비용은, **상품 대금과 배송비**뿐입니다.

초기 비용

0원

도입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.

월 이용료 · API 이용료

0원

월 이용료도, API 이용료도 없습니다. 사입하지 않은 달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결제 금액

상품 대금 + 배송비

지불하시는 것은 사입하신 상품의 대금과 배송비뿐입니다.

Q. 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?

공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, 사입하시는 쪽의 이용은 무료입니다.

보충: 미배송·불량·표기 상이는 전액 환불합니다(상한 없음). 도착 후 검수 기간 내에 화면의 신청 양식 또는 API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오늘부터, **카드 없이**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1



이메일로 등록(즉시)

등록하신 날부터 포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

2



그대로 사용해 보기

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검색부터 테스트 발주까지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(도매가는 이용 시작 후 표시). 카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.

3



첫 발주 전에 사업자 확인

간단한 확인을 마치면, 도매가도 곧바로 본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내 결제 전에, 사입 조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4



실제 카탈로그로 발주

화면으로도, 시스템 연동(API)으로도 가능합니다. 엔지니어가 진행하시면 약 15분 만에 첫 테스트 주문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.

등록 직후의 홈 화면 —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번호와 함께 화면에 나열됩니다.



운영 회사 안내.

회사명	orosy株式会社 株式会社ギフティ (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 상장)의 지분법 적용 관계회사
대표자	野口 寛士(노구치 간지)
설립·자본금	2018년 5월 · 1억 엔
소재지	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1-2-2 오사카역앞 제2빌딩(본사) / 후쿠오카시 하카타구(규슈 지사)
사업 내용	도매·사입 서비스 ‘orosy’의 기획·개발·운영
거래 은행	미즈호은행·미쓰비시UFJ은행
등록번호	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T8120001213457

결제는 **Stripe** 를 이용합니다

카드 정보는 국제 결제 인프라인 Stripe 가 취급하며, orosy 는 보유하지 않습니다.

도입 전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

사내 설명용 자료 준비나, 귀사의 업무에 맞춘 안내를 도와드립니다.

먼저 무료 등록부터 사용해 보십시오.

바이어 포털에 등록하고 오늘부터 사용해 보기

wholesale-portal.orosy.com

이메일 등록만으로, 검색부터 테스트 발주까지 오늘부터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카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.

엔지니어를 위한 안내: API 문서(레퍼런스) wholesale-api.orosy.com/docs

문의

support-retail@orosy.com

상황에 맞춰, 연동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.

당신의 판매 채널에, 일본의 도매 사업을 연결합니다.

취급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. 전 세계 공급사의 상품도 취급할 예정입니다.